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상승, 금리 반등..미국증시 하락

- 미국증시 주요지수 하락 마감
- '바이백' 확대 약발 하루만에 끝..국채금리 반등
- 월마트 실적, 소비둔화 우려 자극

Summary

미국증시 반등 하루만에 하락

현지시각 8월 20일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재상승하고 며칠 보험권에 머무르던 국제유가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월마트 실적에 대한 실망까지 반영해 소매유통주와 헬스케어, 빅테크와 방산주 등을 중심으로 하루만에 약세 전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32% 하락한 52,759.2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87% 하락한 7,641.1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00% 하락한 26,067.17에 거래를 마감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은 1.34% 하락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0.72%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7.52% 상승.

(다우 -1.32%/ S&P500 -0.87%/ 나스닥 -1.00%/ 러셀2000 -1.34%)

'바이백' 약발 하루만에 끝?..미 국채 금리 반등

전일 미 재무부의 장기채 조기 매입, 이른바 '바이백' 규모 확대 계획 발표로 하락했던 국채금리가 일제히 반등. 전일 장 마감 이후 나온 미 국가 부채 40조달러 돌파 소식은 결국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고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제유가는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 금리 반등의 요인이 됨. 하이퍼스케일러 중심 메가 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회사채 발행을 한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어 결국 재무부의 '바이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금리 반등으로 이어짐. 국채금리가 하루만에 반등해 10년물 기준 4.7%를 재상회하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바이백 규모가 전일 계획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고 장기금리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정 문제에도 대응할 것임을 언급함. 그는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재정건전화에 초점 맞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성장을 통해 미국의 부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 치솟는 국채금리에 대한 재무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연이틀 보여줬음에도 전일 약발을 받았던 채권 시장이 이날은 반응하지 않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상대적 주식 매력 약화 우려,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 약화 우려 등이 재차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소비 위축 우려로 이어진 월마트 실적

이런 가운데 발표된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실적도 시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함. 월마트는 전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이 23%, 글로벌 광고 매출이 38% 증가하는 등 디지털 및 신사업 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5.9% 증가했다고 밝힘. 다만 소매 유통 업체 실적에서 핵심 지표로 꼽히는 동일 점포 매출이 크게 부진. 월마트의 전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6%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6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직전 분기 기록했던 4.1% 대비 크게 둔화한 것. 시장 전망치 3.8%에도 미치지 못함. 회사는 연방정부 약값 관련 정책 변화로 약국 부문의 매출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보나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여기에 1회 방문 당 소비자 구매금액도 하락해 소비자들의 지출이 위축되고 있음이 확인,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위주의 실질 소비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소매유통주, 나아가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 요인이 됨. 월마트는 전체 연간 매출 전망은 상향했지만 소비의 한 축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우려를 드러냄.

이날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어드밴스 오토파트츠의 실적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도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실었는데, 어드밴스 오토파트츠는 2분기 매출과 동일매장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며 특히 가계 예산 압박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것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

특징종목

S&P500 내 섹터별로는 에너지(+0.38%), 부동산(+0.15%) 섹터 정도가 소폭 상승했고 이외 업종은 모두 하락. 특히 필수소비재(-1.93%), 헬스케어(-1.89%), 재량 소비재(-1.77%), 산업재(-1.22%)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헬스케어 약세: 모더나 차익 실현

전일 머크(-2.11%)와 공동 개발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3상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하루만에 주가가 170% 이상 폭등했던 모더나(-23.55%)가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 모더나의 mRNA 백신이 갖는 유효성이 이번 임상 성공을 통해 입증됐지만 임상 성공이 판매 허가와 실제 상용화, 그로 인한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날의 과했던 기대를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자체 iNeST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1.97%)도 전일 21%대 급등 이후 이날은 하락 전환하는 등 헬스케어 업종 전반이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하락.

비트코인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5월 급락 이전 수준인 73,000달러 언저리까지 회복. 최근 6주간 이어졌던 62,000~66,000달러대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한 이후

오름폭을 확대했으며 전일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법’ 의회 통과 압박 등이 저항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된 것으로 분석. 가상자산 규제 완화법인 ‘클래리티법’은 존 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9월 15일 표결 일정을 확정된 상태로 실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높아진 법안 통과 가능성과 함께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 “드디어 새로운 가상화폐 강세장의 초입에 서게 됐다”고 말하기도.

이 같은 재료들에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자 한 시간 안에 10억 달러 상당의 매도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으며 24시간동안 30억 달러 이상의 하락 베팅 강제 청산이 진행. 즉 공매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도로 비싼 값에 사들이는 ‘숏 스퀴즈’ 현상이 상승에 상승을 더한 것으로 풀이됨.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이 같은 급등세에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하루 사이 10% 이상 급등했으며 증시에서 관련주도 동반 상승. 코인베이스 글로벌(+7.58%), 라이엇 플랫폼스(+8.26%), 마라 홀딩스(+15.54%), 스트래티지(+7.81%).

이외 특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97%)는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대규모 메모리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해 연구원 수백 명 규모의 ‘마이크론 리서치 랩’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 내에 설립되는 최초의 메모리 전문 연구 허브. 마이크론은 이곳에서 고객사와 학계, 정부 기관, 스타트업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 마이크론 뿐 아니라 SK하이닉스(ADR, +4.43%), 샌디스크(+2.0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12%), 웨스턴 디지털(+1.51%) 등을 중심으로 메모리/스토리지 종목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 마벨 테크놀로지(+5.79%) 역시 전일 알려진 알파벳(-1.18%)과의 파트너십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했고, AMD(+0.65%), 브로드컴(+0.43%), 램 리서치(+1.09%) 등도 상대 강세. 엔비디아(-0.33%)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언어처리장치 기반의 AI 칩 연내 출하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소폭 약세권에 마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9.15%)는 전분기 총매출이 1년 전에 비해 5.9% 증가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이 23% 늘고 글로벌 광고 매출이 38% 증가하는 등 디지털, 신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 다만 시장은 핵심 지표인 미국 내 기존 점포 매출에 주목. 기존 점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쳐 6년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 전분기 증가율 4.1% 대비 크게 둔화했을 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 3.8%도 하회. 회사는 약국 부문 매출 부진이 전체 기존 점포 매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방문당 구매 금액도 낮아져 실질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킴. 코스트코(-2.58%), 달러트리(-2.59%), 달러제너럴(-0.83%) 등의 소매 유통 업체 주가도 동반 하락.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어드밴스 오토 파츠(-24.55%)는 역시 2분기 매출과 동일매장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어드밴스 오토 파츠는 가계 예산 압박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것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해 월마트에 이어 가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움.

사이버 보안 기업 클라우드스트라이크(-5.60%)가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CTO)의 사임 소식에 약세. 지스케일러(-5.23%), 포티넷(-1.35%), 옥타(-4.99%), 팰로 알토 네트워크(-2.84%) 등의 사이버 보안주 대체로 약세.

금리 상승은 최근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며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금을 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요인. 오라클(-1.21%), 메타 플랫폼스(-0.04%), 마이크로소프트(-0.65%), 아마존닷컴(-2.15%), 알파벳(-1.18%). 알파벳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성능을 향상시킬 자체 칩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 등 외부 업체에 대한 칩 공급망 의존도를 다변화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음. 한편 테슬라(-1.71%)는 옵티머스 출시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관측에 약세.

디어앤컴퍼니(+6.94%)는 전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내년 농기계 시장의 뚜렷한 반등세를 전망하며 연간 이익 전망의 하단을 상향하자 강하게 상승했고 반도체 부품 제조사 울프스피드(-9.42%)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며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급락.

이외 우주, 양자 컴퓨팅 등의 테마 종목들은 높아진 금리 수준을 부담으로 반영해 약세. 로켓랩(-3.81%), 레드와이어(-5.08%),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6.60%), 스페이스X(-4.05%), 아이온큐(-4.22%), 디웨이브 쿼텀(-2.69%), 아키타 쿼텀(-2.74%), 쿼텀 컴퓨팅(-3.33%). 스페이스X는 특히 이날부터 2차 랍업 물량이 해제돼 물량에 대한 부담도 함께 반영.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대이란 제재 가능성..국제유가 오름폭 확대

국제유가는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 경제 압박을 경고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상승폭을 확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겨냥해 전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공조된 경제적 고립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 살인적인 정권의 경제를 짓눌러버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발언함. 그는 “그들이 군에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봉쇄 시행이 베네수엘라에서 효과를 봤고 쿠바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듯 이란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란을 경제적 고립으로 압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원유 공급은 여전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89% 상승한 배럴당 86.83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10월물도 전장 대비 1.72% 상승한 배럴당 93.78달러를 기록.

금값은 금리 반등에도 전일 돌파한 온스당 4,500달러선 위에서 추가 상승. 4,570달러대까지 0.57% 가량 추가 상승. 은값도 3% 내외 추가 상승.

바이백 효과 하루만에 소멸..국채금리 반등

미 국채 금리는 전일 국채 금리 급락으로 이어졌던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가 사실상 구조적인 금리 상승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하루만에 약발을 다하자 일제히 반등. 며칠째 보험권에 머무르던 국제유가가 오름폭을 확대한 것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5bp 상승한 4.1875%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5.8bp 상승한 4.7041%를 기록, 하루만에 4.7%대를 회복.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5.7bp 상승해 5.2476%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 사이 금리 차이는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더 큰 영향으로 3.23bp 확대(베어 스틱프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34% 중반대 수준으로 반영했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0% 후반대로 전일 대비 소폭 높여 반영.

달러 가치 소폭 반등

국채금리 반등과 함께 달러 가치도 소폭 반등. 금리 반등뿐 아니라 엔화 약세, 국제유가 상승세 등의 재료 모두 달러 강세 요인. 이날 달러-엔 환율은 0.6% 이상 강하게 상승(엔화 가치 하락)하며 하루만에 159엔대를 돌파.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본 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 의지에 대한 시장 내 의구심이 짙어지며 엔화는 약세로 달러 강세에 힘을 보탬.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04% 상승한 98.869를 기록.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장 중 1,390원을 하회하기도 하는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1,392.6원에 거래를 마친 달러-원 환율은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35원)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장 종가 대비 1.95원 상승한 1,394.20원에 최종 호가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